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8
----------	-----

2012년 10월1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2. 10. 김연선 의원 외 26명
- 나. 회부일자 : 2011. 2. 15.
-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2.10.12)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1.2.24 심사보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연선 의원)

제안이유

-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로서,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른 전염병의 유입과 발병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시 보건의료체계가 구

축되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계획으로 촉발된, 지역간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의료·보건시설의 리모델링과 최신 의료설비 도입, 우수한 인력의 충원 등 공공보건 의료체계 향상을 촉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공공보건 의료체계 개선을 도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해 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의 강화하며, 보건의료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바, 서울시 공공의료시스템 구축과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3)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윤 병 국)

□ 검토요지

- 지방의회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계획을 재고(再考)하고, 서울추모공원 부지에 별도로 “(가칭)응급외상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간에 균형 있는 의료기관의 안배와 주민간 원만한 의견조정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 현재,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적 전염병 관리를 비롯하여 노인질환 및 다문화가정의 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중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시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1958년 개원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 확대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던 중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최적 부지로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을 선정하게 됨. 그리고, 2009년 4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묘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되어있는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를 종합의료단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됨.
- 이후, 2010년 2월22일 서울시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추모공

원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계획을 검토·수립 중에 있음.

- 그런데, 서울추모공원 부지내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공공의료 기관의 강남 이전에 따른 강북 지역의 상대적인 공공의료보건서비스의 약화 등의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과 재건축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의 건강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형평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시의 공공의료 및 보건 수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소재 공공보건의료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수립 및 강남북 균형발전 등 다양한 영역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음.
- 다만, 서울시의 보건, 의무, 전염병 관리 및 시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사항과 서울추모공원 부지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한 사안은 현재 복지건강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를 소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38

발의년월일 : 2011년 2월 10일

발의자 : 김연선의원 외 26명

1. 주 문

-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해 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의 강화하며, 보건의료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바, 서울시 공공의료시스템 구축과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로서,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른 전염병의 유입과 발병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시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계획으로 촉발된, 지역간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의료·보건시설의 리모델링과 최신 의료설비 도입, 우수한 인력의 충원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향상을 촉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도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

- 서울시민의 건강권 추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됨으로써 경제수준의 격차에 따라 건강 및 의료 이용 등에 영향을 미쳐, 고소득층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은 건강권 추구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수치를 본다면,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와 의료 이용인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소득수준의 격차나 자치구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나 의료 이용률에 대한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실정을 볼 때, “국립중앙의료원”은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해 낮은 의료수가를 적용하면서도 보다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접근성도 용이한 공공의료기관이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립중앙의료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될 계획에 있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계획은 서울시 중구를 비롯한 수많은 서울시민과 나아가 우리 국민 전체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서울 중심부의 응급의료체계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바, 현재 도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발전과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건물 리모델링과 최신 의료설비를 도입하며, 우수한 의료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예정지인 서초구 원지동 인근 주민들과 현재 위치한 중구 주민들과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추모공원 부지로 이전(서울시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 MOU체결 - 2010년 2월 22일) 하게 된다면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될 것이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계획을 재고(再考)하는 한편, 서초구 주민들에게는 서울추모공원 부지에 별도로 “(가칭)응급외상센터”를 건립하여 서초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며,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간에 균형 있는 의료기관의 안배, 서초구와 중구 주민간의 원만한 의견조정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2011.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